김동화박사 현창비 건립 한·일 공동, 상주 남장寺에

한국근대불교학 기초확립…7월8일 제막

◇故김동화박사

일제강점기에 일본 리쇼(立正)대학에 유학, 불교학 강사를 역임하며 조국인 한국에서도 한국근대불교학 방법론의 기초를 확립한 뇌허 김동화(雷虛 金東華, 1902~1980)박사. 한국근대불교학의 아버지이자 한일불교학교류의 대부로 존경받는 김 박사의 현창비를 한일 불교학계가 공동으로 건립한다. 특히 한국 불교계가 아닌 일본 리쇼대학 불교학부의 미토모(三友健容) 교수가 준비위원회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이 현창비 건립을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현창비건립추진위는 오는 7월 6~7일 일본인도학불교학회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다음날인 8일, 현창비 제막식을 김 박사의 묘소가 있는 경북 상주시 남장사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미토모 교수는 현창비 건립을 위해 일련종 및 리쇼, 구마자와(駒澤), 다이죠우(大正), 도요(東洋), 오오타니(大谷), 류고쿠(龍谷), 미노부산(身延山) 등 각 대학의 불교학자 및 관계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창비 건립은 지난해 김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토모 교수 등이 1월에 남장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다음달부터 동국대 교수와 현창비 건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 9월에 전국비구니회와 동국대 총장 및 불교대학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남장사 주지스님 등에게 건립취지문을 발송해 한국측 현창비건립위원회가 추진됐다.

또한 10월 23일에는 서울에서 김동화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센터가 문을 열고, 다음 달에는 〈김동화박사 전집〉이 간행되는 등 현창사업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미토모 교수는 11월 중순 일본측 현창비건립추진위원회 조직을 위한 위원에 취임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련종 및 각 대학의 불교학자와 한일불교교류협의회 등에 발송하면서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

미토모(三友) 교수는 "현창비 건립은 김동화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일 불교학자들이 단결해 과거의 한일 감정을 풀고 국경을 초월한 양국 불교학의 교류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의미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김동화 박사의 관련자료가 흩어져 현창작업이 지연되었으나, 탄생 100주년을 경과한 올해 비석건립을 실현하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

근대 한국불교학의 초석을 다진 김동화 박사는 근대적 의미의 불교학 연구방법론을 받아들여 한국불교학 연구의 체계를 세운 학자다. 평생 22권의 저서와 200여 편에 이르는 논문과 논설을 남긴 그의 학문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소승 및 대승불교, 중국, 한국, 일본불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를 섭렵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상월대조사 91회 탄신 법요식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 제91회 탄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삼귀의례, 대조사 법어봉독 헌향 헌화, 상단권공 및 조사영반, 봉축사(운덕 스님), 축사(조계종 총무원장, 충북도지사, 한나라당불자회장)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 등 천태종 스님들과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유의재 충북도지사, 이광훈 단양부군수 등 2만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

미륵종 불동암 대웅전 낙성식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 불동암(주지 행인)은 지난 3일 총무원장 송정스님, 불동암 주지 행인스님을 비롯 2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5개월간의 불사를 회향하는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한편 미륵종은 21일 오후 3시 김해 관음정사에서 '종단화합을 위한 신년법회 및 진해 불모산 산행'을 실시한다. (055)335-6683

화엄산림법회 훈훈한 회향

통도사, 법요식외 국악한마당 · 자비원위문

화엄산림법회 회향식이 열렸다. 통도사는 회향 법요식과는 별도로 11,12일 양일간 열린 국악한마당과 자비원 위문 방문은 예년에는 볼 수 없는 훈훈함과 흥겨움으로 화엄산림법회 회향의 의미를 더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을 비롯한 종무소 소임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설법전에서는 화엄산림법회 회향기념 국악한마당이 열렸다. 송해씨의 사회로 진행된 국악한마당은 김성녀씨의 찬불가, 신영희씨의 심청가, 최향순씨의 승무 등이 선보여 불자들에게 국악의 흥을 한껏 전했다. 이날 동참한 불자들은 한달여 동안 계속된 화엄경 공부로 느꼈던 환희심에다 국악인들이 펼친 흥겨운 국악 장단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한편 화엄법회 회향일인 12일 회향법회에 이어 통도사 부설 자비원에서 통도사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자비원의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 화엄법회를 값지게 회향했다. 이날 잔치는 대교반 선은스님을 비롯한 학인스님들이 화엄법회 기간인 12월 15일~신년 1월 12일 동안 법회때마다 법문 테잎을 판매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준비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 선운스님을 비롯한 스님 25명과 포교국 산하 신행단체 회원들은 떡과 다과를 준비하고 찬불가와 흘러간 옛노래 공연을 펼치며 노인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산=천미희 기자

◇13일 한마음선원 태국지원 대웅전 개원법회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부터 송기영 신도회장, 혜원스님, 혜단스님, 남혜정 여신도회장, 전원수 태국한인회장.

한마음선원 태국지원 대웅전 낙성

김국진大使등 300명 참석 점안·현판식

태국 방콕에 소재한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지원장 혜단스님)은 13일 불상 이운법회 및 점안식과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과 광주지원장 혜월스님 등 스님 10명과 4개 지원 법형제 합창단원, 김국진 태국대사, 전원수 태국한인회장, 송기영 신도회장 등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혜원스님은 "승보를 공경하는 태국의 불자들이 마음공부에도 정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이 없는 도리로 전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태국지원은 600여평의 대지에 50여평의 대웅전과 요사채 2동을 갖추고 있다.

김재경 기자

9천500년전 古代도시 印度서부 해안서 발견

인도 서부 수라트 해안 가까운 얕은 바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9천5백년 전 고대도시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16일 인도 정부가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5천5백년 전의 수메르 문명 유적(이라크 소재)이 인류 최고(最古)의 유적으로 알려져 왔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발굴현장에서는 건축자재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나무와 뼈의 조각들이 발견됐으며, 이들은 기원전 7천5백년 전 유물로 추정된다고 조시 인도 과학기술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인도 고고학자 라지글 박사는 "최소한 9천5백년 전에 이 지역에서 인간이 활동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인도에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기원전 2천5백년)이 있지만, 이번 발견이 학계의 인정을 받을 경우 연대가 인더스 문명보다 5천년, 수메르 문명보다 4천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여성경시 시정돼야

천 미 희 (부산주재기자)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진리를 부처님은 '무상'이라 했으며 그것은 불교를 규정짓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쉬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불교계의 보수적인 태도가 그러하고 또한 비구니스님이나 여성 재가자들이 스스로를 규정짓는 방식이 그러하다.

이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얼마전 부산에서 일어났다. 부산교계의 출가와 재가가 지혜를 모아 시민운동에서 제 목소리를 내어보자고 18일 청정화합시민연대를 결성하면서 생긴 일이다. 몇 개월에 걸쳐 준비모임을 가지며 창립을 위한 조직을 꾸린 후 최종 준비 모임을 갔던 날, 한 여성신행단체장이 이런 지적을 했다.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NGO를 표방하는 이 단체의 공동대표에 어째서 비구니스님이나 여성재가가 단 한 명도 없느냐?"고.

그랬다. 17명이나 되는 공동대표 명단에는 비구니나 여성 재가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운영위원이나 분과위원장에도 여성의 이름은 단 3명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불교를 움직이는 많은 여성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현실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그 지적이 받아 들여져 비구니 스님 한명과 여성 재가자 한 명을 공동대표에 또 다른 비구니 스님은 고문에 추대됐다.

그러나 공동대표 명단에 여성의 이름 석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누가 불러내 주고, 이름을 올려 주길 기대하기에 앞서 여성 스스로 변화하는 21세기, 시대적 요구에 걸맞도록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영역을 넓히려는 자각을 갖고 적극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총지종, 신년하례 법회

불교총지종(통리원장 혜암)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 서원당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퇴임식을 봉행했다.

록정 종령, 혜암 통리원장 등 종단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수행월, 원봉, 혜산, 송하, 주신 제 스승의 퇴임에 따른 은가사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이날 록정 종령은 법어를 통해 "오직 종단을 위해 정진력으로 일선교화에 임해준 스승님들께 감사한다"며 "현직을 떠나더라도 승단을 위해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福 메주
100% 純우리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깊은 맛을 빚어내는 옛날메주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해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정진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메주는 영주에서 재배한 100% 우리콩을 기아술에 넣어 장작을 때고 삶아 나무틀에 넣은 다음, 손으로 디자래어 풍법과 비법 진흙으로 만든 토옥에서 정성껏 말리고 발효시킨 자연발효 옛날 메주입니다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복메주로 담근 된장을 13년째 판매하고 있읍니다
어머님 정성으로 만든 된장이 보관 쌀뜸물에 풀러 우리 몸의 기운을 돋구도, 많은 불자님들께서 메주 불사에 동참하시어 무시겁으로 지은 업장심이 시원하게 풀리길 발원합니다
◑ 생산지 포항 금강정사
◑ 메주 1말 55,000원
◑ 참기름과 완장(죽염), 고추장, 국간장, 분말메주도 언제든지 구입하실 수 있읍니다
메주 주문 연락처 : HP. 011-203-6567 ·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부산 051)514-3566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대전 042)862-8638
청원 055)299-5419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광주 062)681-3268
김홍 033)644-9009 ㈜복식품

게시판

▲무료 한글교실=대구 자비의 전화는 무료 한글교실을 연다. 매주 화 · 금요일(주2회)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한글을 깨치지 못한 성인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053)753-9734

▲차량자원봉사자 모집=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은 독거 노인들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을 배달할 차량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배달지역은 경산시 읍면지역에 주1회 오전 11:30-12:30, 오후 3:00-4:30, 2회 배달한다. (053)811-1347

▲종합상담실 이용자 안내=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아동 · 청소년 문제, 고부갈등, 부부갈등, 성격문제 등 다양한 고민거리를 상담하는 종합상담실 이용자를 모집한다. 상담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이다. (02)385-1351

▲생활보조원 모집=공주 노인요양시설 금강원은 숙식이 가능한 여자 생활보조원을 모집한다. (041)853-1068

▲불교한문학과 개설=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한문학과를 신설, 입학생을 모집한다. 2년 과정의 불교한문학과는 한문법이론, 중국고전, 한문불교경전 등의 교과목이 개설된다. 모집인원은 50명. (02)732-1206

▲조계종 자원봉사단 신년 법회=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3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2002년도 조계종자원봉사단 신년법회를 봉행한다. (02)723-5101

활인(活人) 천역(天役者)자 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명예와 양심을 걸고 역학사(易學史)에 한 획을 긋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오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오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 효 사 -

세태 (世態)는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영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묻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매시간마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세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학문으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아나 접근이 어려워 덮어버리기 십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낮 사(巳)시 (9:32 -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칸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만하면 다 맞게 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중하는 것입니다.

1. 운세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가부 : 천도 시식 굿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러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 말자, 전화 오자말자, 가서 만나자 말자 때뜸 내쑨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망가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득실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수 있게끔 써 놨습니다.
8. 선악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아타발동(我他發動)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건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旣事)여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 · 중간 · 결과로 나눠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귀신침범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만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발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칸에 다 써 놨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 라고 들어서는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 운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밝힐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생년월일시를 물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쏴부칠 수 있도록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자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장인, 남편, 아내, 낙태아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승여부 : 빌미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띠만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빌미부정든 띠들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상길흉(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방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수상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 · 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9. 응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 · 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올 사람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21. 길흉성부단정항목 : 뒷면에, 묻는 용건을 즉시 답변해 줄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망 · 공명 · 구재 · 구직 · 시험 · 혼사 · 임신 · 가정 · 이사 · 소송 · 질병 · 매매 · 출생 · 도난 · 심인 · 대인 · 상면 · 채용 · 투자 · 승부 · 가격 · 경작 · 묘지 · 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띠만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밝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한지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등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한글판 「육임1년 신수비결」출시
1년 중 어느날이든 그 날과 온 시간, 전화해 온 시간, 가서 만난 시간, 또는 그 사람의 띠만 알면 출생 년월일시가 필요없이 1년 12달의 길흉 성부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쉽고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신수 책은 영영세세 두고두고 보는 책이며 정확합니다.
이 책을 능가하는 신수 책은 없습니다. 어떤 오행술도 육임의 정확도와 과단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육임은 신시(神示)로서, 스님이 말씀하면 법력(法力)이 되고, 신명제자가 말씀하면 귀신(鬼神)이 되고, 오행가가 말씀하면 도력(道力)이 됩니다. 감히 자신있게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에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바인더로 된 본 책에서 그 날치 한 장만 빼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오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몇 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와도 모두 다르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 전 13권 · 바인더금박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 주문전화 : (02) 993-8680
● 입 금 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복문 ※ 각종 카드로 장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부록 · 비디오테이프 포함
W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

육임 1년 신수비결 출시 주문받습니다.
값 250,000원(1,450페이지, 8절 미색모조)이고, 보는 날짜와 시간만 찾아 그것을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적중합니다. 띠별 월별 길흉이 신통하게 적혀 있어 평생동안 매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